

안타까운 대한민국...자살률 순위 여전히 OECD 1위

1년전보다 3.2% 감소했지만 OECD 평균 2배 이상...독거노인 증가세 미세먼지 농도 1위·성폭력 26% 증가, 100명 중 3명 음주운전 경험

우리나라 자살률은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 넘게 늘었고 만 19세 이상 국민 100명 중 3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자살률 감소 추세지만 OECD 평균 2배 넘어=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여자의 자살률이 더 크게 감소하며 남자의 자살률을 밀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감소 추세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1명이었다.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2위 리투아니아(18.5명)와는 5.6명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

난해 21.1%로 1년 전보다 0.2%p 높아졌다. 독거노인 비율은 2013년 18.4%에서 2018년 19.3%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지난해 167.1로 집계돼 OECD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 OECD 회원국 중 1위=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에서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OECD가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9 $\mu\text{g}/\text{m}^3$ 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20 $\mu\text{g}/\text{m}^3$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칠레(24.2 $\mu\text{g}/\text{m}^3$)와 튀르키예(22.6 $\mu\text{g}/\text{m}^3$)뿐이었다. 근접한 국가인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0 $\mu\text{g}/\text{m}^3$ 로 우리나라 절반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6.1 $\mu\text{g}/\text{m}^3$ 에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이용이 감소하고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26% 늘어=2022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8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까지 대체로 늘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1만490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만605건), 강간(6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에 기

인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율은 반등했다. 지난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월간 음주율)은 2022년 54.0%로 1년 전보다 0.5%p 높아졌다.

월간 음주율은 2015년 58.7%에서 2016년 59.4%로 높아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년 만에 반등했다. 남자 음주율은 66.9%로 0.2%p 낮아졌지만, 여자 음주율은 41.2%로 1.3%p 높아졌다.

감소하던 음주운전 경험률도 정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사람의 비율은 2022년 3.3%로 1년 전과 같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5059건으로 165건(1.1%) 늘었다. /연합뉴스



'복구, 치매애 희망을 나누다' 25일 광주 비엔날레 광장과 용봉재 인근에서 열린 '치매걱정 없는 복구, 치매애 희망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열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에서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나주 임서 신도비 등 전남도, 유형문화재 4건 지정

전남도가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 등 3건과 조선 후기 인물 '임서'를 기리는 '나주 임서 신도비' 1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 구례 화엄사 대웅전 동종, 구례 화엄사 구중암 동종, 나주 임서 신도비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는 1860년 화승 해운당 익찬과 30명의 화승이 조성한 세로 길이 6m가 넘는 대작 불화다.

대시주자인 임응환과 구례현감 이종무 등이 왕실과 종실의 안영, 세자의 탄생, 선왕선후의 천도 등을 기원하며 발원해 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 왕실 발원 불교미술과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대작이면서도 안정적 구도와 뛰어난 필력 등 19세기 전라도 지방의 화풍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례 화엄사 대웅전 동종은 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효건이 대표 장인으로 1722년 제작한 유일한 작품이다. 제작연대가 확실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18세기 동종 양식과 사장 계열 주중장의 계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구례 화엄사 구중암 동종은 조선 후기 활동한 사장 계열의 대표적 주중장인 김성원이 보조 장인 도움 없이 단독으로 만든 작품이다. 주중기를 통해 제작연대,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나주 임서 신도비는 조선시대 인물인 임서를 기리기 위해 김상헌이 글을 지었고 이경재가 글씨를 썼다. 신도비에는 임서의 선대와 가계, 벼슬살이, 이괄의 난 때 활동상, 건립 과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 유교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광주시에 "군 공항 관련 진정성·구체성 갖고 대화해야"

강기정 시장 '플랜B' 발언 유감 표명

전남도가 지난 24일 군 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진정성과 구체성을 갖고 무안군민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가 사실상 무안군민과의 첫 만남부터 대안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무안지역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남도는 25일 "군 공항 이전지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

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무안군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나 '플랜B' 언급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난해 12월 만나 군 공항 문제 진전을 전제로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무안군민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4일 토론회도 이 노력의 일환이며,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함께 마련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시의 진정성과 이전 지역 지원 방안의 구체성에 대해 무안군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슴을 터놓고 대화 나누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공항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상생하는 것"이라며 "무안에서 통합공항을 실행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노사민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 선언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의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을 했다.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킨 노사 상생 경험을 축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수의 창출과 경영 안정화, 노사민정은 노동자의 실질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동정책자문관을 운영하고, '일하

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단노동자 조직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심의 등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GGM 근로자 주거지원비를 오는 7월부터 10.3% 인상에 대리 이하 근로자,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과장급 근로자 590명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거비 인상은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m^2
- 건축 282 m^2
- 연면적 438 m^2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수 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능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m^2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채출공고)

주식회사 김승이앤씨(이하 "김"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김승이앤씨(이하 "김"이라 한다)는 2024년 4월 25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김"과 분할합병하고, "김"은 존속하며, "김"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와무는 "김"에 승계하고, 김승이앤씨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개시 익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김" 주식회사 김승이앤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410
사내이사 채 해 석

"김" 주식회사 김승이앤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2길 47(성산동)
공동대표이사 김 재 준
공동대표이사 김 주 안

분실공고

- 공금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계약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 번길 8 일원 힐스테이트 첨단 103동 2902호
- 계약자: 김 태 수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4년 4월 26일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매매

010-3605-50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m^2 비탁628 m^2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 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